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33권 52호(다해) 2013-11-24

[묵사]



YEAR OF FAITH 2012-2013



신앙의 해 로고(왼쪽)와 상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선포한 '신앙의 해'가 작년 2012년 10월11일 시작해 2013년 11월24일 오늘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막 내린다.

“ 왕 ? ”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Mt.20,25)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탄젠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오월봉 데레사
	(생) 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홍석인 체첼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주용범 아브라함,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박동욱 요셉, 장현숙 발바라, 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토,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배일호 헨리 & 배판호, 유아나시아, 전임주 안나, 전시웅 요한, 송봉규 요셉, 송공광 카나리나, 성대경 & 오숙향,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생) 정엘리스 클라라, 이윤조 클라라, 엄영숙 마리아, 채승희 에스티, 유진숙 비비안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데레사 가정, 김은 안나, 우영희 엘리사벳 & 김현숙 벨라멧다 & 김기숙 엘리사벳 & 방미숙 마리아, 권희창 요한, 홍석인 체첼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2 Samuel) 5,1-3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 뻐 -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12-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도다.○

복 음 루카(Luke) 23,35L-43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07	207	207
봉헌	264	265	264
성체	Above All	291	309
파견	기뻐하며 왕께	179	238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성모송을 비롯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성월 역시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1) 성모송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이다. 성모송의 전반부는 복음이 전하는 천사의 인사(루카 1,28: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와 엘리사벳의 인사말(루카 1,42: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인사말이 합쳐진 것은 6세기경이다. 이 형태는 이미 6세기경 대림 주일 봉헌문에 나타난다. 다만 오늘날의 성모송처럼 '태중의 아들'이라는 표현 뒤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12세기 말에 첨가된 것이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러 루카 복음의 '주님의 어머니'(1,43)라는 표현과 함께 성모송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는 문구가 합쳐졌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성모송에 대해서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들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성모송은 특히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 삼종기도

삼종기도는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드린 인사(루카 1,28)를 기억하면서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중세 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도로 자리 잡았다. 하루 세번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신자들의 하루 생활 리듬을 이끌어주었다. 13세기 피사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신자들이 성모송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 세 번 종을 울렸다. 이러한 영향이 유럽 여러 지역에 미쳤다.

1318년 요한 22세 교황은 저녁 종이 울릴 때 세 번의 성모송을 외우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베풀었다. 15세기에는 아침에 세 번 성모송을 하도록 종을 울렸고, 16-17세기에는 한낮에도 마찬가지였다. 1724년 베네딕토 13세 교황은 은사를 베풀면서 종이 울리면 무릎을 꿇고 삼종기도를 바칠것을 권고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오 12세 교황은, 모든신자들이 삼종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당의 종을 하루에 세 번타종하게 하였던 갈리스토 3세 교황의 회칙(1456년)을 상기시키며, 삼종기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친히 로마 성지 순례자들과함께 한낮에 삼종기도를 바쳤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교황은 로마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바티칸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함께 바치고 교황 강복을 베풀고 있다. <◆계속>

예수님은 봉사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이 범죄 집단을 결성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것이 한(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그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명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생 동안 참회의 생활을 했고 마지막엔 장기기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기자가 사형 집행에 임회했던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참회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느님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맡겨야하겠지요.” 하느님의 도우심, 즉 은총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삶의 불만을 무고한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안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직은 권력을 부리고 힘을 쓰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봉사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누구나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욕심... 이러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이며 인도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서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봉사와 사랑을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서로 인사 합니다.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늘 11월 24일은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걸어온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12월1일 대림 제1주일을 겸손되이 맞이합시다. 이때부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 오늘 필리핀 태풍피해 이재민 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최근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큰 고통을 겪고있는 필리핀 국민과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물적 지원을 하기위해 오늘 2차헌금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바랍니다.

◆ 제32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오리다." - 시편 89: 2-

- 일시 : 11월28일(목) 오전 10시30분 연합미사
- 미사집전 : LA대교구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전국 노래자랑'
누구나 알고있는 한국방송 '전국노래자랑' 형식으로 진행.
본당신부님과 수녀님이 함께하면 가산점 부여.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백삼위 한인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합동미사에 참여하시는 교우들께 본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 성가연습에 적극 참여합시다. -
- * 충성가연습 : 오늘 주일 오후 1시 성전
- * 리허설 : 11월28일(목)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파크 현장
- * 문의 : 민원희 안나 성가대 지휘자 ☎(310)634-9631

◆ 대림 특강

- 일시 : 대림 제1주일/제2주일(12월1일, 8일)
오후 1시
- 주제 : '신앙은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장소 : 성전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LA대교구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12월1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께선 미리 준비하시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1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12월1일부터 대림시기에 하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속합니다. (본당합동판공성사일이 아니더라도) 고해성사에 빠지지 말고 참여합시다.

◆ 본당 사목회 홍보분과 연말모임

- 일시 : 12월6일 오후 7시30분
- 연락처 : 이민상 사도요한 홍보분과장 ☎(213)709-4400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탄절을 앞두고 성물부에 묵주팔찌 등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들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24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국밥 \$3)
* 주일학교(킨더가튼 짜장밥)
- 12월1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 주일학교 : 추수감사절연휴 수업없음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교복 김병학 김성현 김 용 김 은 김일선 김종문 김주량 김찬구 모은기 박상준 박영희 박완철 배태임 송재훈 신순철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육근주 윤석구 이상곤 이우성 이현주 익 명 임한나 장영우 정정자 정열도 정정현 최미열 최원석 송마이클 한길선례	합계 : \$3,580
주일미사 헌금 : \$2,937		
성전헌금	강미순 김교복 김병학 김 용 김종문 김주량 김찬구 모은기 민기남 박상준 박완철 신순철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이상곤 이우성 이일길 이현주 익 명 임한나 장영우 정열도 정정현 최미열 최원석 송마이클 한길선례	합계 : \$2,16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 일시: 12월14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성전
- 대상: 유치원~12학년
- 문의: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학부모와 일반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부 지역사회 봉사

- 일시: 12월7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 내용: 어려운 가정돕기(물품 포장 및 전달)
- 장소: LA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문의: 남스텔라 중등부 주임 ☎(310)918-3324

남가주 소식

◆ '신앙의 해' 폐막 특강

- 일시: 11월25일(월), 26일(화) 오후 7시~10시30분
- 장소: 성 토마스 성당(오렌지카운티)
- 강사: 신은근 신부(덴버한인성당 주임)
- 주제: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 문의: 이로서리아 (714)772-3995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12월21일(토) 오후 6시
- 장소: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참가비: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한인 가톨릭 청소년 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 모여라! 함께 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최: FIAT재단 -

- 일시: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장소: Servite 하이스쿨(애너하임 소재)
- 참가대상: 8학년~12학년
- 참가비: \$25 * 신청마감: 1월3일(www.fiat.org)
- 문의: ☎(714)772-3995 또는 각 본당 고등부 담당자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2014년 4월)
- 시상: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마태오 972-1469 1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720-8240 11/16(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1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정남형 알베르토 347-9487 11/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현석주 아오스당 560-4968 11/15(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1/18(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8(금) 오후 8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544-1267 11/8(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482-9108 11/8(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1/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율리아나 617-3568 11/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2013년 성서주간 답화문(요약)

삶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2013년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서 주간의 주제 성구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라는 말씀은 바오로 사도가 우상으로 가득찬 도시 아테네에서 이교도들에게 행한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사도 17,29 참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대로 성경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지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게시 현장」 21항)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에서도 성경을 “영혼을 밝히는 빛, 햇볕, 영혼을 기르는 양식, 풍성한 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속에서도 필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널리 퍼진 이 최초의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어 신앙을 지켜 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약하고 매달라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신앙을 틈타 그리스도교에서 파생되어 성경탄을 강조하고 왜곡하는 사이비 종교가 한국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음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믿는 분이 어떤분이신지,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애써 알아들어야 하는 단순한 ‘인식 대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내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몸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발아하는 씨앗들은 죽어야만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게 해 줍니다. 우리도 자신을 죽이고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시는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온갖 나약함과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과 사랑으로 응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필리 2,15) 있습니다.

제29회 성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 금년 그리스도 왕대축일은 지난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던 ‘신앙의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통하여 준비하신 신앙의 해를 우리는 지난 1년 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때 우리는 한해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골로 2,7)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필리 2,16) 말씀을 살아 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현존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 위원장 손삼석 주교

Q/A 세례성사 때에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호성인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 옛 근동지방에서는 새 직책을 부여할 때에 이름을 바꿈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의미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당신의 뜻을 살아가도록 독려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는 영예를 부여하실 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황이 선출될 때, 그리고 수도자의 허원식에서 새 이름을 부여하며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새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세례명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명은 수호성인의 삶에 비추어 지혜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느님의 것’으로 분류되었다는 언약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주보성인은 우리들이 튼튼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내편’이니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매사에 응원을 청하면 좋습니다. 수호성인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 중에 주님의 뜻을 택하도록 보호를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성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하느님께 ‘함께 간구해주는’ 전구에 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살가운 성인의 전구로써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축복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